

정치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민주당 손학규 후보

“DJ 정신만이 현 사회적 문제 풀 수 있어”

만남사람=임동욱 서울취재부장

손학규 후보의 얼굴은 밝았다. 최근 나라 나고 있는 상송세가 미소에 묻어났다. 그는 ‘민생·통합·평화’의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근간으로 진보는 물론 중도와 보수층 지지까지 확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인터뷰는 6일 서울 여의도 신동해빌딩에 있는 손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1시간30분 동안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안철수 바람이 세다.

▲안철수 현상의 배경에는 민생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 먹고 살기 힘든 데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고 끝불견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꿔줄 사람 없다’는 기대가 안철수 바람을 일으킨 것이다. 우리 사회에 백신 역할을 하는, 정의의 역할을 하는 배트맨이라는 심리적 카타르시스 대상으로 부상한 것이다. 하지만 배트맨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안 교수의 후보단일화와 공동정부론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은 제1야당이다.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국민은 민주당을 버리지 않았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과오를 냉정하게 심판했지만 아직까지 지켜보고 있다.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 복지 강화, 교육 혁신 등 비전과 자세를 보여주면 지지를 이끌어 올 수 있다. 국민과 함께 난국을 헤쳐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각오를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후보도 선출하기 전에 단일화를 얘기하고 “안철수 도와줘, 공동 정부 하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다. 공동 정부도 당 대 당이어야 가능한 것 아니냐.

-안 교수가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는가.

▲민주당에 달렸다. 민주당이 후보를 제대로 선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누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안 교수는 (대선 출마보다는) 협력에 나설 것이다. 자기 역할을 찾을 것이다. 손학규의 안정감과 안철수의 정의감, 손학규의 실력과 안철수의 매력에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성찰론’을 주장하고 있다.

▲참여정부 말기에 집권당이 해체되고 무려 530만 표 차이로 대선에서 패배하는 수모를 겪지 않겠다. 그 자체가 국민에게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경제 양극화와

안철수 공동정부론은 당대 당이어야 가능

박준영 후보와 연대 광주정신 계승하는 것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민생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빠져진 반성이 있어야 한다. ‘선거에서 진 것이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는 궤변 갖고는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의 대선 출마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인가.

▲대선 출마가 진정한 반성의 자제인지 보자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추모 분위기와 그 인기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손 후보도 정치적 부침이 많았다. 손 후보의 반성과 성찰은 무엇인가.

▲반성과 성찰은 끝이 없다. 과연 내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 바쳐왔다고 자문해본다. 자신을 위한 합리화와 변명에 급급하지 않았나고도 생각한다. 한나라당 전력에 대해 끊임없는 공격 받고 아파도 했다.

하지만 이제 한나라당 전력과 아픔을 자산으로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근태 의장이 꿈꾸던 세상을 기필코 만들어 아쉽고 서운했던 점 제대로 갚겠다.

-DJ 정신 계승을 강조하고 있다.

▲DJ 정신은 민생, 통합, 평화다. 통합의 정신으로 IMF라는 민생의 위기를 극복했다. 국민은 그의 진정성에 장풍 속의 금별이를 앞다퉈 내놓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민생 복지의 발판도 만들었다. 특히,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기본 바탕을 만들었다. 역사적인 일이다. 이러한 DJ 정신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풀어갈 해법이다.

-경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직이 있나, 돈이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정신’ 하나를 갖고 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감동의 드라마를 보여 드리겠다.

-손 후보의 대선 승리 방정식을 제시한다면.

▲이번 대선 구도는 중도·중산층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다. 과거 2002년 선거 구도가 아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지지로 선회했던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 정치적으로 중도 내지 중도 보수층이지만 ‘박근혜로는 곤란하다’고 느

끼는 민심을 끌어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안이 없다면 ‘박근혜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다가도 포기한다. 그 대안은 감히 ‘손학규’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

-대안이 손학규 후보인 이유는.

▲이번 대선의 테마는 변화와 안정이다. 안정감 있게 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지난 분당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보자. 민주당의 사지로 평가받는 곳에서 새누리당 성향의 보수적 유권자들은 손학규를 지지했고 50% 넘는 지지율로 승리했다. 변화에도 안정감이 필요하다. 복지와 혁신은 시대 흐름이다. 중도 및 보수층도 인정하지만 내심으로는 ‘나라 경제를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손학규가 나선다면 ‘안정적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사회가 숨이

막힐 것이다. 불행해진다. 수직적 인간관계 밖에 경험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령, 일언지하에 사회가 움직인 것을 보고 자랐다. 지금 새누리당의 모습이 그렇다. 소통 없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데 어떻게 복지가 이뤄지겠는가.

-박준영 후보와의 연대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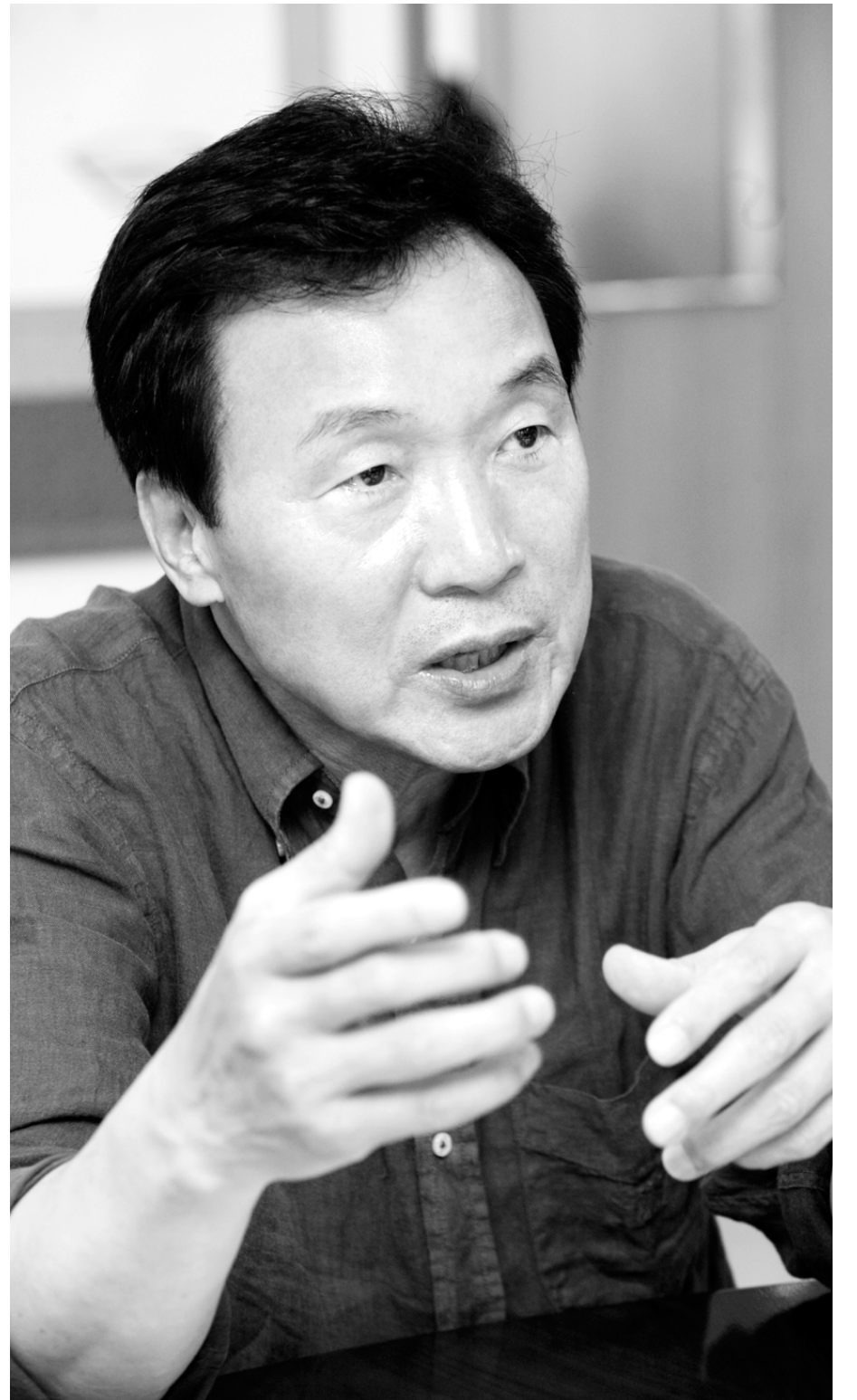
▲박 후보가 이번 예비경선 과정에서 참여정부의 실패와 반성의 문제를 제대로 지적했다. 이번 대선을 규정하고 승리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박 후보와 긴밀하게 연대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야말로 광주 정신을 계승하고 DJ 정신을 잇는 것이다.

-지역민께 드릴 말씀이 있다면.

▲지금도 광주를 방문할 때마다 마음이 숙연하다. 대한민국에서 광주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 때문이다. 역사의 위기와 고비마다, 현장마다 광주와 전남 지역민이 있었다.

이는 ‘광주 정신’으로 의연하게 흐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전남의 후보로 인정받고 싶다. 지난 2010년 아무런 지지 기반이 없는 저를 민주당 대표로 만들어 주셨다. 정권 교체의 발판으로 쓰셨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감히 저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드린다.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tuim@kwangju.co.kr



4선 의원·경기지사·당대표... ‘준비된 대통령’

■ 걸어온 길

“이보다 더 완벽한 수 없다”

손학규 후보의 경력에 대한 이야기다. 민주 투사, 교수, 4선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장관, 경기지사, 3번의 당 대표 등으로 이어진 그의 이력은 ‘준비된 대통령’이란 구호를 내세우기에 충분하다는 평을 받는다.

손 후보는 경기중·고를 나와 서울대 정치학과에 다니면서부터 반독재 투쟁을 한 재야운동권 출신이다. 유신 종식 후 유학길에 올라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인하대·서강대에서 교수를 했다.

그는 지난 1993년 광명 보궐선거에서 여당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으며 소장개혁파의 리더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

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가 돼 74만 개(서울시의 6배)의 일자리와 7.5%(전국 평균 5%, 서울시 2.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2006년 지사 퇴임 후 ‘민심대장정’을 시작으로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들었으나 한나라당의 한계를 지적하며 탈당, 대통합민주신당의 대권 경쟁에 합류했다. 하지만, 취약한 조직 때문에 패배했으며 2008년 총선 패배 후 총선에서 2년여 침묵했다.

2010년 10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했으며 지난해 4월 분당 보선에 승리하며 중산층으로 표 확장력을 보여줬다. 당 대표 시절 두 차례 야권통합을 이뤄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학교수 정책브레인...정치·문화계 인맥 많아

■ 손학규의 사람들

손학규 후보는 민주화운동과 학계·정치 경력을 하며 쌓은 폭 넓은 인맥이 있다.

후원회장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심크럼크 동아시아미래재단 이사장은 김성수 전 성공회대 총장이 맡고 있다.

송태호 전 문체부 장관은 재단 좌장이며 장달중(서울대)·손광현(청주대)·김태승(인하대) 교수와 홍사중 미래상상연구소 대표 등도 재단인사다. 또 장하성(고려대)·박순성(동국대)·김호기(연세대)·최영찬(서울대)·김진방(인하대)·박지음(순천대) 교수 등이 정책브레인으로 꼽힌다.

박정규 목사와 김응옥 세명대 석좌교수, 시인 김지하, 소설가 황석영, 연출가 임진택,

화가 임옥상,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연출가 김민기, 축구선수 박지성 등은 손 후보와 친밀한 사이다.

캠프에는 이낙연·신학용·양승조·조정식·김동철·오재세·이찬열·이춘서·김우남·최원식 의원과 정장선·장세완·김영춘·송민순·전혜숙·최영희 전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고, 이용섭·이인영·인제근·이윤석·김승환·임내현 의원 등도 우호 세력으로 꼽힌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이계호 전 전남부지사,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임성훈 나주시장, 김호수 부안군수, 임정엽 완주군수, 노관규 전 순천시장, 이계환 전 양천구청장 등도 친손(친손학규) 계로 분류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WA AUCTION (다와옥션) featur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including land, houses, and commercial buildings,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website details.